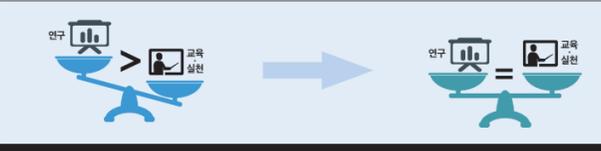


### 3>> LINC+ 사업 점검



글로벌 산학협력  
학생 창업 지원  
산학협력 가족회사

### 5>> 교수업적평가, 어떻게 변했나?



연구 > 교육  
교육 <= 연구

### 8>> 서울시장 후보들 인터뷰



## 구성원 의견 반영·‘차기’는 새 제도로

〈총장선출제 관련 두개의 원칙〉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지난 3월 30일 총장선출제 개정과 관련해 학교법인 경희학원(법인)과 대학평의원회대표단(대표단)이 가진 면담자리에서 법인이 제시했던 ‘이사회 산하 상설기구’가 베일을 벗었다.

법인은 제4차 대학평의원회에서 법인 공영일 이사장을 포함한 5명으로 ‘총장선임법인소위원회(소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법인은 이사회 산하에 총장선출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총장선출제 검토와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위원회는 공 이사장, 박찬범 이사, 장현수 이사, 윤석인 개방이사, 유명철 이사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법인 이사회로부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의결기능과 권한을 위임

받았다. 지난 3월 면담에서 법인이 “상설기구 논의를 통해 8월 이사회에 맞춰 총장선출제 개정의 가닥을 잡으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공언했고, 이번에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미뤄보아 법인 역시 총장선출제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의 정식명칭에 ‘총장선임’이 명시돼 있어 총장선출제 개선을 바라보는 대표단과 법인의 시각차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5월 15일 열린 제4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직원노조 김중현 위원장은 “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현 총장 임기 내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 빠른 만남을 제안했다. 이에 법인 서규훈 사무처장은 “이사회 또한 타 대학 제도를 참고하여 각각의 장단

점과 모델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25일에는 대표단과 소위원회가 첫 만남을 가졌다. 대표단은 만남에서 “총장선출제도의 변화를 주장한 것은 구성원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구성원의 진전된 정치의식으로 총장선출제도가 바뀌려고 하는 것이니, 구성원의 생각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의 뜻과 동떨어져 단순히 ‘제도’만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표단은 “차기 총장은 이번에 바뀌는 총장선출제에 의해서만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소위원회는 대표단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와 대표단 각각 실무 수준 ‘소통위원회’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꾸준히 만날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적어도 6월 중순까지는 첫 소통위원회를 가지자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이번 만남에서 “8월까지는 반드시 제도를 만들겠다”며 “구성원 뜻 또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원에서 소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제도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성원 또한 신뢰를 가지고 법인을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4월 26일 열린 제2차 이사회의에서 타 대학 총장선출제가 보고·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하버드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 등 해외 대학과 포항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국내 대학의 선출제도를 각각 검토했다.

## 우리학교 비정규직 채용 방침, 인권위 “조사 중”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리학교 비정규직 채용방침을 두고 인권침해 여부 판별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조사에 나섰다.

문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침이 명시된 우리학교 공문 두 건에서 발생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양식 및 관련절차 변경>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변경양식 및 유의사항 공지>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본교 기간제근로자는 2년까지만 채용이 가능하며, 2년 경과시에는 근무경력 단절 여부와 무관하게 재채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공문은 인사처가 지난 1월 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학교 각 행정부서로 발송했다.

인권위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불가방침에 대해 차별문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관련 공문을 우리학교에 전달하고, 해당 방침이 나오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인권위 차별조사과 조은영 담당 조사관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학교 측 답변을 23일까지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 차별 조사과로 입건돼 사실경위 제출 요구

우리학교 인사처는 지난 23일 답변기한을 1주일 가량 연기했다. 인사처는 24일 “현재 답변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두고 인권위는 인권침해 요소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 대해서는 인권위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권위의 조사와는 별개로 재채용 불가방침을 두고 학내 구성원의 비판도 모이고 있다. 경희학원노조는 “대학의 방침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희학원노조 측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학은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이미 채용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학교에서 근무했던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채용하라는 것은 채용비리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희학원노조 측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학은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이미 채용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학교에서 근무했던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채용하라는 것은 채용비리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직원 사이에서도 이번 방침은 논란이다. 갑작스러운 인사처 방침에 우리학교 행정부서 상당수가 당혹감을 표하는 한편, 불만까지 표하고 있다. 일부 직원은 비정규직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혹평했다.

### 직원들 “재채용 불가방침 법적근거 없다” 반발

한 단과대학 행정실 A 계장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무단절을 둔 뒤 다시 비정규직으로 계약하는 일이 우리학교에서 다년간 성행해왔다”면서 “우리 행정실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재채용 불가방침으로 인해 떨어진 분이 있어, 갑자기 해당 방침을 내세운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문제인식 자체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단과대학 행정실 B 실장은 “2년 계약 만료 후 근무단절을 통해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따져보면 재채용 불가방침은 문제소지가 있다”며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는 생각 없이 해당방침이 명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사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라는 입장이다. 인사처 박진호 과장은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일정부분 행정부서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캠퍼스 제50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커넥트(KHU:NNECT) 선본이 미술대학 504호에서 정책 PT를 하고 있다. 커넥트 선본 정후보는 송태현(경영학 2014), 부후보는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이다. 송 정후보는 “무엇이든지 연결할 수 있는 총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지연 기자)

## 학교까지 뺀 ‘몰카’ ... 총학 “사전 예방하겠다”

〈국제캠〉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

【국제】인터넷 커뮤니티 ‘위마드’에 올라온 우리학교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진이 우리학교에서 촬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학교 측은 결론 내렸다.

지난 14일 홍익대 누드크로키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던 커뮤니티 ‘위마드’에 우리학교를 비롯하여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남자 화장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들이 게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화장실

이용 못하겠다”는 등 불안감을 토로했다.

논란이 터진 다음날인 15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는 “제보 직후 교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며 “몰래카메라 촬영 및 음란물 유포는 성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피의자가 내부 구성원으로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총학생회는 다음날 국제캠 부총장, 미래혁신원단장과 함께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미래혁신원,

성폭력대책위원회, 관리팀 등 학내 부서가 협력해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마드의 게시물은 우리학교에서 촬영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혁신원 미래혁신단 학생지원센터 박현기 계장은 “학교 자체조사 결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진은 우리학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내 양변기 모양과 사진 속 양변기 모양이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사진과 동일한 배경 및 구조의 화장실은 캠퍼스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일단락 된 이후 총학생회는 6월 4일~5일 양일간 총학생회, 학생지원센터 및 관리팀, 용인동부경찰서가 협력하여 전체 화장실 및 샤워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탐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총학생회는 “단순 탐지가 아닌 몰래카메라 설치의 의심되는 화장실 구멍 또한 점검하여 개·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총장실, 미래혁신원과 논의 결과 자체적으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하여 차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Facebook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스포츠 선부 릴레이 인터뷰는 지면 사정상 온라인에 게재됩니다.

### 전문가 칼럼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근절돼야 정완(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면



# 시선

## 사설

### 교수업적평가제도 개편 핵심가치 반영 환영

우리학교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최근 합동교무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2014년 9월 교원인사제도 개선 위원회를 시작으로 3년간의 논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새로운 교수업적평가제도는 학문계열별 특성을 고려하고 대학의 핵심 가치인 교육, 연구, 실천을 종합적으로 아울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전까지 교수업적평가제도는 연구 활동 평가가 중심이었다. 대학에 고용된 교수로서는 고용주의 의중을, 평가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자기복제나 논문 쪼개기 등 정량적으로 보이는 지표를 올리기 위한 편법이 행해졌다. 연구의 양을 평가하는 풍토는 해외 연구자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 우물을 파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진단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교수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평가하는데 있어 연구에 방점이 찍혀있던 것은 비단 우리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요 언론 일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이후 대학들은 매년 이들이 발표하는 순위 하나하나에 울고 웃어야 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학평가 시 연구영역에 30%선의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의 대학평가는 교원 당 논문 수, 피인용 지수 등 ‘연구역량’을 정량화 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2011년 전임교원의 담당강의시수를 기존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여주면서까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 여건은 상대적으로 하락했으며 책임시수 축소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2014년 1월, 당시 안재욱 서울부총장은 책임시수 축소가 기대만큼의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번 교수업적평가제도 개편의 결과, 그간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교육, 실천 분야 비중이 확대되고 연구 평가 역시 그 질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무처 등 관계 부처의 노력과, 논의에 참여한 교수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물론 아직 결과는 모르기에 낙관적이지만 한 예측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변화의 큰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들이 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대학의 핵심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개편이기 때문이다. 학문의 공동체인 대학은 서로의 지식에 깊이를 더하고 외연을 확장하며 이를 후대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희대학교가 가지는 교육의 가치를 바라보며 매년 입학하는 4천여 명의 교육수요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대학에 지워지는 사회적 책무 또한 실천으로써 감당해야 한다. 대학의 본령을 생각한다면 이번 평가제도 개편은 진작 해야 하는 일이다.

이미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책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에 ‘논문 게재 건수’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3년 전 세계 과학자 155명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저널 인용지수’를 평가에 반영하지 말자는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역시 이제라도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나아가 이것이 대학사회에 던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 대학은 지금

### 공익을 위한 학교

안나연 기자 na@khu.ac.kr

지난 15일 고려대 제50대 서울총학생회(서울총학)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캠퍼스(서울캠) 화장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몰카 영상이 유포된 것을 파악했다”(본교 화장실 몰카 촬영 의혹 제기 돼/고대신문, 2018.05.23) 서울총학은 “몰카 촬영 및 유포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서울캠에서 몰카 의혹이 제시됨에 따라 제13대 세종총학생회는 “교내 경비업체의 몰카 탐지기를 대여해 세종캠퍼스 내 화장실과 휴게실의 몰카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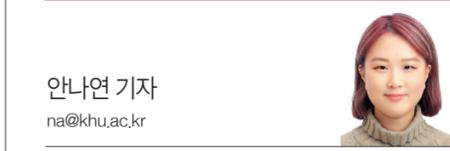
지난 10일 영락교회에서 진행된 ‘서울숭실 재건기념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대회’에서 송실대 재학생 및 졸업생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이 주의 주제 - 인권센터 출범

## 인권센터, 타대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안나연 기자 na@khu.ac.kr

인권센터 출범이 3달 정도 남았다.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노조)은 “대학본부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권센터 설립을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출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역시 그 필요성을 절감해 오는 8월 말까지를 출범 목표로 삼았다.

인권센터는 행정인력을 포함해 3~4명의 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그 상위 기구로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생길 때에만 소집되는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인원은 3~4명이 전부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모든 인권문제를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오롯이 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략적으로 양 캠퍼스를 오갈 예정이다.

다른 학교 인권센터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인력부족이 문제다. 지난해 인권센터를 개소한 연세대는 ‘인권: 생각에서 실천까지’라는 필수 교양 과목을 개설했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재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상주해있는 직원이 없어 지속적으로 인력난이 제기됐다.

인권센터가 대학본부에서 말하는 “인권을 깊이 있게 교육, 연구, 홍보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한명의 직원이 전문적인 연구, 학내 구성원 대상의 예방교육, 교육과 홍보를 전부 담당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또 현재까지 우리학교 인권센터의 계획을 들어보면 세분화된 부서도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경우 상담소, 연구부, 교육부, 행정실이 별도로 존재하며 해당 부서들이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인력을 전문적으로 배분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3~4명의 인권센터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물론 본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인권센터가 개소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우려해 부서를 선불리 나눌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필요한 만큼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는 걸 안다. 대학본부와 노조가 말하는 “처음에는 뼈대대더라도 인권센터를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다만 인권센터가 ‘인권에 특화된 전문기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온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인권센터를 먼저 출범시킨 학교들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검토하며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다 교인에 의해 무력으로 제압됐다.('이사장 퇴진' 기습 시위 발생... 일부 시위자 무력 제압돼/송대시보, 2018.05.21) 송실대 이사장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로 '송실 이사장 퇴진 행동'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세습을 저질러 교회의 사유화를 시도했기에 민주 교육 이념에 맞지 않다”고 한다. 한편 시위자들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도 교인들에 의해 위협을 당했으며 카메라를 들고 있던 학생은 수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유라 학사비리'로 구속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의 징역 2년 형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의해 확정됐다.(입시 비리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확정/이대학보, 2018.05.21) 정유라 학사비리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고자 최순실 씨와 최 전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가 공모한 사건이다. 최 전 총장을 비롯해 학사비리에 연루된 남궁근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이원준 체육과학부 교수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한편 학사비리 공모를 주도한 최순실 씨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 의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

서강대 총학생회가 지난 달 28일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공동행동에 참여했다.(본교 총학,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뽕은 맛>행진 동참해/서강학보, 2018.05.17) 해당 운동은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뽕은 맛>'으로 학생의 학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진행됐다. '학생 손으로 총장 뽑고, 대학 민주성 확대하자'를 주요 구호로 삼은 <뽕은 맛>은 이대역부터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다음 달 18일 열린 예정인 제4차 이사회에서 서울대 총장 후보 최종 1인이 선정될 예정이다.(이사회 내달 18일 총장최종후보자 선출/대학신문, 2018.05.20) 서울대 당면직 이사인 박찬욱 교육부총장은 “6월 19일 까지 교육부에 최종 후보자 선출 결과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며 18일에 이사회를 여는 이유를 밝혔다. 제4차 이사회에서는 총장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50분간 개별면접을 실시 한 뒤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 문제를 청년에게서 찾지 말라

### 세시봉

설지연 (국제뉴스팀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당연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청년 실업문제 해결’ 공약이다. 청년 실업률이 10.7%에 육박했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한 명은 백수라는 말이다. 남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주변을 둘러보면 취업을 위한 스펙 전쟁이 한창이다. 학점 관리는 기본에 어학, 공모전, 인턴까지 다들 바쁘게도 산다. ‘N포 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왔을까.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러 공약 중 우리가 관심 갖는 주제는 아무래도 ‘청년 실업문제’였다.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라는 공통 질문에 각 후보는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금 지급’, ‘창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장려’라는 답변을 내놨다.

창업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골목상권은 대기업이 장악한지 오래다. 영세 상인이 주를 이뤘던 ‘분식점’마저 대기업이 손을 땀다.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 그 상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대기업은 거대한 자본을 이용해 비슷한 상품을 심지어 더 좋은 가격에 내놓는다. 지난 2015년 ‘파리바게트’는 파주에 위치한 ‘프로방스 베이커리’의 마늘빵과 똑같은 제품을 출시했다. 해당 마늘빵은 프란치스코 교황 내한 당시 먹었던 ‘교황빵’으로도 유명했다. 이 마늘빵의 제조방식은 특허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파리바게트는 이 마늘빵을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논란이 됐다.

### 중소기업, 가고싶은 환경 만들어야

창업에 실패했을 때 떠난아야 하는 위험 또한 너무 크다.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우리사회에는 실패했을 때 ‘오독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 위험성을 해결해주지 않은 채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 창업을 권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점대점경으로 한 후보자는 “고학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치가 높아 실업률이 높다”라는 발언을 했다. 많은 대학생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것이 그저 ‘눈이 높기’ 때문일까. 눈이 높아져 취업이 안 되는 것이 과연 우리 청년만의 탓일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복지 차이, 발전성을 따져 본다면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기업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중소기업을 청년이 원하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 생각이 없고 그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만을 맞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 대기업의 상권 침해, 안전망 부족, 기업 간 격차 등 구조적 차원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나면 해결책을 입에 담기는 쉽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까. 문제점을 ‘청년’에게서 찾지 말라.

## 알림

###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옥 | 편집장 박지영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30-4 | 주소경정 02-441-7317(미래714)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 Tel 02-961-0030-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21

# 1차년도 사업평가 평균 이상... 학교-기업 교류 질 높여야

## LINC+ 사업 1차년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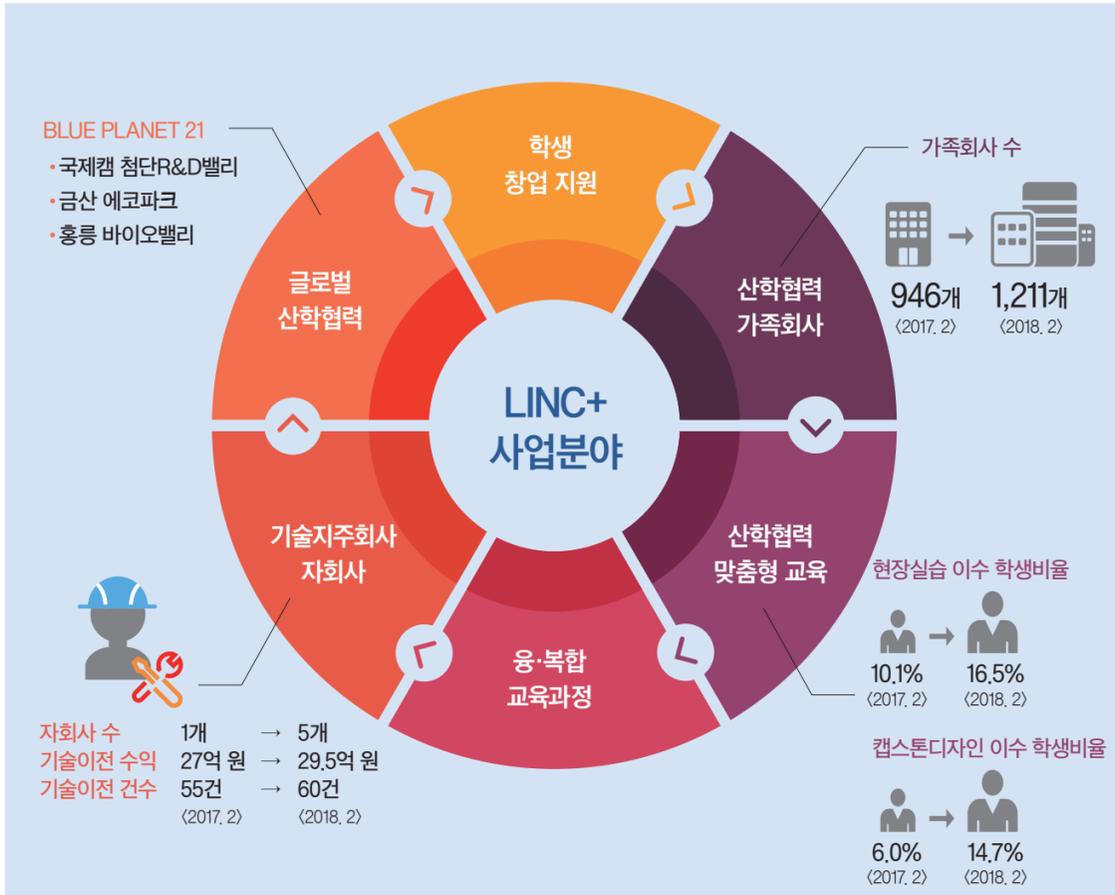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우리학교가 5년간 약 200억 원을 지원받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에 선정된 지 1년이 됐다. 우리학교는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3: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LINC+ 사업의 전신인 LINC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더 의미 있는 결과였다. 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중간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오는 2019년 2월로 예정된 중간점검을 앞두고 1차년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다.

1차년도(2017.2.-2018.2.) 사업기간 동안 우리학교 LINC+ 사업단은 6개 지역특화 산업 중점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했다. 산학협력성과분석센터, 산학융합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혁신지원센터, 글로벌 비즈니스혁신센터 등 모두 6개의 센터가 설립됐다. 특히 기업혁신지원센터는 산업체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으며,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했다.

LINC+ 사업단은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 과정 참여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과 사회맞춤형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17개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교육 과정에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연계해 운영한 결과, 우리학교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은 2017년 2월 10.1%에서 2018년 2월 16.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학생 비율은 6.0%에서 14.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 학생 수는 341명에서 413명으로 늘었다.

기업과 교육 및 연구협력을 맺는 '가족회사'의 수도 늘었다. LINC+ 사업단은 지난 1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265개의 가족회사 유치에 성공했다. 2017년 2월 기준 946개였던 가족회사는 1년 새 28% 증가한 1,211개로 확대됐다. 가족회사 유치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도 마련됐다. 가족회사 유치 시 교원이 건당 10점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수업적평가를 개편했다. 가족회사 신청 채널을 신설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족회사별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LINC+ 사업단 이영주 사무국장은 "현재 가족회사 수는 많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수



는 소수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LG디스플레이가 정보 디스플레이학과 졸업생 중 일부에 대해 자사 취업을 보장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쌍방향 교류를 앞으로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창업 지원책도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오픈랩이 서울캠퍼스(서울캠) 행복복기숙사 1층과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회관 1층에 신설됐다. 오픈랩에선 창업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경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KHU Valley'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는 LINC+ 사업 1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4개가 신설됐다. 2017년 ㈜피부생명공학센터와 ㈜케이에코텍이 설립됐으며, 2018년 상반기 ㈜씨에이티비텍과 ㈜3D가 설립됐다. 이로써 2009년 설립된 ㈜한방바이오를 포함해 모두 5개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올해 신설된 4개 자회사의 매출실적은 미비하다.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본부장은 "이들 자회사는 설립초기로 경영·재정 상

황이나 매출 정도가 아직 걸음마 단계다"라며 "학교기술을 통해 설립된 회사인 만큼 학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회사를 추가적으로 설립하는 계획도 접근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이전 수익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LINC+ 사업단에 따르면 2016년 27억 원이던 기술이전 수익은 2017년 29.5억 원으로 2.5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기술이전 건수도 2016년 55건에서 2017년 60건으로 증가했다.

융합전공 교육과정도 개설됐다. 지난해 학사제도개선 TF에서 처음 윤곽을 드러낸 융합전공은 지난 5월 15일 대학평의원회가 학칙개정에 합의하기까지 두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앞선 3월 20일 대학평의원회에 융합전공 개설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고, 이후 4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융합전공 학칙개정 안건은 다시 부결됐다. 당시 교수회의 이성근 의장은 "관련 졸업자 수를 볼 때 연계전공은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융합전공을 시행

하기 전 연계전공 실패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학칙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융합전공에 관련된 자료를 구성원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구성원 간 소통의 부재도 지적했다.

국제캠 교무처 김창우 처장은 "융합전공은 연계전공과 달리 제1전공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융합전공 도입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LINC+ 사업에서도 융합교육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사업 계획 이행을 위해 학칙개정이 필수"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Blue Planet 21' 준비위원회도 조직됐다. Blue Planet 21은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3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점교 글로벌 협력 사업이다. 이에 세계적인 융·복합 R&D 사업 및 교류실천 프로그램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캠 15만평 부지에 R&D벨리를 구축해 첨단사업을 육성하며, 총복 금산 40여만 평 부지에는 인류건강과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연구단지 '금산 에코파크' 건립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흥릉바이오벨리를 통해 타 대학, 의료기관 등과 협력으로 의료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단지 개발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실제로 이 사업은 Blue Planet 21 논의가 가시화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성과 없이 정체돼 있기도 하다. LINC+ 사무국 허균영 부단장은 "LINC+ 사업단 자체 노력만으로 이들을 이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우리학교는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2월 진행한 1차년도 사업평가에서 수도권 대학 11개의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LINC+ 사업단 허균영 부단장은 "LINC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재 당장 마주한 과제는 2차년도 중간점검이다"며 "반드시 해내야 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2차년도 중간점검을 통과하기 위한 과제로 이 사무국장은 "학교와 연결된 기업과 쌍방향 교류를 이뤄내는 것이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이러한 쌍방향 교류가 잘 정착되어 있는 학교에 높은 점수를 줄 것 같다"고 예상했다.

1차년도 평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적사항은 '구체화'였다. '예산의 input, process, outcome'으로 이뤄지는 환류 시스템을 설명한 이 사무국장은 "환류 시스템의 실제 피드백 및 개선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구체화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대한 사업량에 대해서 허 부단장은 "LINC+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학교 모든 기관에 좋은 사업을 문의했고 이를 담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방대해졌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LINC+ 사업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LINC+ 사업에 관해 허 부단장과 이영주 사무국장이 입을 모아 말한 것은 '학내 구성원의 참여'였다. 허 부단장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없다면 받은 예산은 써보지도 못하는 셈이다"며 "학내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참여를 위해 SNS와 광고를 많이 내고 있고 더 원활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형·전임교원강의 비율 상승, 교육여건 개선은 '글썸'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2018학년도 1학기 전체 강좌 수가 작년 1학기에 비해 400개 가량 증가했고, 소형강의(수강인원 20명 이하) 비율과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대학알리미에公示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학기 우리학교 전체 강좌 수는 4,371개로 지난 해 1학기에 비해 408개 증가했으며 직전 학기에 비해선 529개 증가했다. 전체 강좌 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학기 처음으로 증가했다. 2016학년도 1학기 대비 2017학년도 1학기의 전체 강좌 수 증가 폭이 145개 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증가 폭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증가분 대부분이 소형강의 혹은 중소형강의(수강인원 20~50명)에 해당한다. 소형강의는 작년 1학기에 비해 255개 증가했으며 수강 인원 21명~30명 강의는 172개 증가했다. 이 밖에 중대형강의(수강인원

50~100명), 대형강의(수강인원 100명 이상)는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강의 크기별 비율을 살펴보면 소형강의는 28.3%로 지난해에 비해 3.5%p, 수강 인원 21명~30명 강의는 18.8%로 지난해에 비해 2.4%p 증가했다. 반면 대형강의 비율은 거의 변함 없거나 감소했다.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김용화 과장은 "캡스톤 디자인과 독립연구 과목이 많이 생겼다"며 "독립연구는 수강생이 1명, 캡스톤 디자인은 3명일 경우에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의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캡스톤디자인은 산업현장의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작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독립연구는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본인이 섭외한 지도교수와 한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하는 자유이수 교과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의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강좌이다.

하지만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의 평균적인 소형강의 비율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8학년도 1학기 우리학교보다 높은 소형강의 비율을 보인 대학은 ▲한국외대 51.1%, ▲한양대 48.0%, ▲성균관대 31.2%, ▲연세대 30.5%, ▲서강대 30.7% 다.

2018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강의담당율의 경우 61.1%를 기록해 지난 해 1학기보다 4.2%p 증가했다. 2016년엔 교원강의담당율을 공시해 이뤄진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긴 56.1%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학기엔 55.4%, 2017학년도 1학기엔 56.9%, 2학기엔 56.7%를 기록해 계속적으로 55~56%대에 머물렀지만 이번 학기 최초로 60%를 넘겼다.

전임교원강의담당율의 변화도 소형강의인 캡스톤 디자인과 독립연구 과목 개설과 관련이 있다. 국제캠퍼스 학사지원과 한상과장은 "작년부터 캡스톤디자인과 독립연구 과목의 운영을 확대해왔다"며 "두 과목은 전임교원만 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1학기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 전임교원강의담당율을 살펴보면 ▲중앙대 67.2%, ▲성균관대 62.2%, ▲한양대 59.5%, ▲연세대 55.5%, ▲서강대 54.1%다.

## 부정청탁신고센터 홈페이지 오픈 안내(http://clean.khu.ac.kr/)

경희대학교 부정청탁신고센터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운영을 위하여 감사행정원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조사를 거쳐 위원회 소집 및 제반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하여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와 내용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관행으로 용인해 왔던 청탁이나 접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청탁금지법의 대학 내 안전적 정착을 통해 교직원의 직무윤리 확립 및 부패방지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교육 및 자료 제공**  
연 1회 이상 온라인 법정 교육 제공,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제공 및 사례 검색 지원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접수**  
'Q&A' 메뉴를 통해 1:1 청탁금지법 문의 가능

**\*부정청탁 관련 신고 접수**  
·부정청탁 ·수수금지금품 ·초과사예금신고(외부강의등 관련)



신고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누구나 가능(본교 교직원 및 외부인)  
신고대상: 경희대학교 소속 교직원  
신고방법: 부정청탁신고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 → 신고처리상태 메뉴에서 확인  
※ 외부강의등 신고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경희대학교 부정청탁신고센터

보도

# “놓치고 있던 우리 권리 찾아야”... ‘커넥트’ 단선 출마

서울캠퍼스 후보 인터뷰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왼쪽부터 ‘커넥트’ 선본의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후보, 송태현(경영학 2014) 정후보

## 제50대 총학생회



# 서울캠퍼스(서울캠) 제50대 총학생회(총학) 재선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정기선거와 지난 3월 재선거가 연거푸 무산됨에 따라 서울캠은 10년 만에 5월 재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에는 ‘커넥트(KHU:NECT)’ 선거본부(선본)만이 출마해 단선으로 치러진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제50대 총학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열림’ 선본이 당선됐다. ‘열림’ 선본과 ‘동행’ 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열림 선본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정후보와 심자용(화학공학 2015) 부후보가 총 투표자 5,030명 중 66.9%(3,368명)의 득표를 당선됐다. 이에 서울캠 제50대 총학 선거에 출마한 ‘커넥트’ 선본 송태현(경영학 2014) 정후보,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후보의 공약을 들어봤다. 또한 국제캠 제50대 총학이 5개월의 임기동안 학생의 지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약을 점검했다.

【서울】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처음으로 5월에 제5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가 진행된다. 단선으로 출마한 ‘커넥트(KHU:NECT)’ 선본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정기 선거에서 쿠도피아 선본 부후보로 출마했던 송태현(경영학 2014) 정후보와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후보의 조합이다. 선본명인 커넥트는 무엇이든 ‘연결할 수 있는’ 총학이 되겠다는 이들의 다짐이다.

커넥트 선본은 공약을 어제·오늘·내일 세 가지로 구분했다. “어제는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를 재정비하는 공약이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 공약, 내일은 경희라는 이름 아래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어제’ 공약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던 권리를 되찾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학본부와 연계해 행정부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태현 정후보는 “경희음부즈 민원 통제에서 행정민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노동조합 또한 평가제도 도입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주인 학교의 평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평가도 반영하게 된다면 동기부여가 되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험, 과제 점수 의무 공개 제도 도입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송 정후보는 학생들을 교육 서비스를 받는 주체로 상정하고 “교수마다 성적을公示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교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감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의평가를 먼저하고 성적을 공개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돼 스스로 필요에 의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황규리 부후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총학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체계적인

기반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된 사람에 따라 역량이 달라지는 총학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다. 총학의 체계를 잡기 위해 총투표를 통한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 공약도 포함됐다. 현재 총학생회칙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을 뿐 더러 ‘관계적으로 처리한다’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표현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송 정후보는 “상위법으로서 작용하는 총학생회칙이 체계적이지 않아 각 단과대학회칙과도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학생들 또한 회칙을 개정하며 누려야 하지만 누리지 못했던 권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칙 정비와 함께 중앙특별기구의 재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복지위원회 등 서류상에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기구들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여 매년 달라지는 자치화비 분배 비율을 고정하겠다는 것이다. 송 정후보는 총학생회와 후마니타스칼리지대학생위원회 등 총학 산하 기구가 아닌 특별자치기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총장선출제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송 정후보는 “우리학교에 가장 적합한 제도는 무엇일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학평의회 기준 의결은 당연히 존중하겠지만 새로운 학생대표가 탄생한다면 의견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당장의 선거에 학생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4년 뒤 차차기 총장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직선제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커넥트 선본은 “학생들이 학생자치를 포함한, ‘내가 속한 집단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선행하면 직선제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공약은 학생들이 직접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에 집중한다. 시행주체만 다른 비슷한 복지 공약을 재정비하고 하나의 통합된 부서에서 진행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커넥트 선본은 입학금을 ‘본래 학생을 위

한 예산’이라고 칭하며 이를 이용해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보수 또는 휴먼 구역 설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일’ 공약은 ‘브랜딩’으로 설명된다. 총동문회와 함께 학교 홍보 영상 제작 및 장단점을 분석해 브랜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이를 위해 총학으로서의 처음으로 ‘동문’과 함께 진행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송 정후보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는데 학생들과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다”며 “총동문회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학교의 발전 방향이 비슷하다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임기가 짧아도 비록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는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으며 준비를 한지 거의 1년이 되는 것 같다”고 답한 송 정후보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총학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황 부후보는 “총학이 학생들 곁에 있어 든든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며 “총학에 대해 관심이 없던 학생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 학생복지는 ‘우수’, 기숙사 공약은 ‘미지수’

국제캠퍼스 총학 공약점검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국제】 66.9%의 득표율로 당선된 국제캠퍼스(국제캠) 제50대 총학생회(총학) ‘열림’이 출범으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당초 열림 선본은 공간 문제 해결, 이원화 문제 논의 등 그간 국제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학생복지와 취업프로그램 증설, 교내 환경 개선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열림 총학의 공약 이행도를 살펴봤다.

열림 선본의 핵심 공약은 전 단과대학 리모델링, 산학협력관 착공 등 공간 관련 공약과 기숙사비 인하였다.

총학은 ‘소통위원회(소통위)’를 통해 학교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소통위는 등록금정책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등록금과 관련된 논의에서 벗어나 학교와 총학이 학내 사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소통위에서는 외국어대학 리모델링 일정을 논의했다. 본래 계획인 2017학년도 동계방학보다 늦긴 했으나 오는 하계방학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단과대학 리모델링의 자세한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산학협력관은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학과 학교는 산학협력관의 순조로운 신축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갈 예정이다.

기숙사비 인하 요구 공약은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기숙사 공실을 교수 연구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 역시 시행이 요원하다. 지난 소통위에서 총학은 우정원 상가 공실을 학생 공간으로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정원의 운영권은 우리학교가 아닌 GS건설에 있다. 기숙사비 인하나 공간 활용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먼저 운영권을 우리학교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예산팀 강성원 계장은 “단기간에 인수인계를 받는 것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기 이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로써 우정원 운영권을 올해 안에 이관받지 않으며, 우정원 기숙사비 인하 또한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GS건설은 2019년 2월까지 우정원 운영권을 행사한다.

우정원 운영권이 우리학교로 이관되면 낡은 시설을 개·보수해 교수연구실, 테크노경영대학원·평생교육원·언어교육원 전용 강의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은 “학교의 우정원 운영권 인수와 산학협력관 진행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다음 소통위나 2학기 때 다룰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제캠 총학 공약 이행 목록

- 1 '경희 열린 확윤위' 개최
- 2 모니터게시판 설치, SNS소통 창구 재정비 등 소통 강화
- 3 설국버스 증차 및 저조한 노선 시간대 변경
- 4 기업 제휴 할인 및 행사 개최 등 학생복지
- 5 소통위원회 개최
- 6 오픈랩 확장 및 중앙도서관 열람실 환경 개선
- 7 교내 안전 취약 지역 가로등 교체 및 추가 설치
- 8 강의 계획서 게시용 향상 방안 논의
- 9 취업프로그램
- 10 총학 내 재정 담당 부서 추가 신설

학사제도 개선 공약은 2차 소통위에서 논의됐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 합의할 예정이다. 이달 내로 ‘강의 매매 방지를 위한 수강신청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학사지원과, 정보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후마니타스칼리지와 간담회를 통

해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이 원하는 강의 개설, 평가 방식 변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큰 공약이었던 공간 문제 논의가 다소 지지부진한 것과 달리 학생복지, 그리고 취·창업 프로그램은 활발히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식사업, 기업 제휴할인, 공동구매와 같은 이벤트성 복지 행사도 많이 진행됐다. ‘봄날의 경희’, ‘경희체전’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캠퍼스 간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요청이 많았던 ‘설국버스’ 증차도 이뤄졌다. 국제캠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으로 가는 버스와 서울캠에서 국제캠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각각 2대씩 증차됐다.

활발한 취·창업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열림 총학은 산하에 취·창업 프로그램 전담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취·창업 프로그램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월 ‘퍼스널브랜딩’ 취업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게시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2학기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서 김 회장은 “단순히 공약을 이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을 위한 공약 외 다양한 활동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학기에는 캠퍼스이원화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취·창업 박람회 등 아직 이행하지 못한 공약 이행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 예비군 훈련 참석, 불이익은 '위법'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서울】 최근 서울대에서 불거진 '예비역 휴대' 갈등으로 대학가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비슷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훈련 일정을 이유로 쪽지시험을 치지 말라고 통보받고 따가운 눈초리를 사거나 훈련 참여로 별점을 부여받았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경영대학 K 교수는 학과 단체가 아니라 따로 훈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예비역에게 불이익을 주려했다. 수강생에게 "쪽지 시험을 아예 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해당 학생인 A 씨는 K 교수에 대해 "훈련 참여 인정은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 씨는 이어 "당초 수업을 빠지기 싫어 훈련을 주말로 대체했지만, 예비군 중대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것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각하셨다"며 "안된다고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사정만 끝에 겨우 쪽지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J 교수는 지난 학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에 별점을 부여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J 교수는 "과거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협조문은 지각과 똑같이 처리한다"며 "예비군 훈련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면 출석 규정을 타협하는 수업 초기에 수강생이 미리 이야기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J 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석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위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단과대 행정실 측에서 따로 공지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 측 규정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비군연대 조병락 계장은 해당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불이익"이라며 문제성을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훈련 참여를 결석으로 처리해 예비역들이 단체로 찾아와 항의했던 적이 있었다"며 "이런 식이면 대체 학생들 누가 훈련 가려고 하겠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조 계장은 또 "지난달 예비군연대 측에서 예비역들의 학업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지만, 행정실에서 교수들에게 관련 규정을 잘 전달했는지 의문"이라며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각 단과대에서 관련 문제를 너무 등한시한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학칙에서 명시하는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출석 처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감사에게 제출하고, 교감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학사지원과 전준하 직원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아예 금지하는 법문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학칙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공문을 다시 전파하는 것이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 독립기구 지위 가진 인권센터, 8월말 출범 목표

안나연 기자 na@khu.ac.kr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노조)이 요구한 인권센터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학본부는 "인권센터 구성 초안이 나온 상태이며 현재 초안에 대해 노조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은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출범할 것"과 "독립적인 지위의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오는 8월 말까지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센터를 출범할 계획이다.

미래정책원 정민섭 팀장은 "우리학교에 옴부즈맨이나 성평등 상담실 등 다른 학교보다 선제적인 기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 인권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다는 자성이 노조에서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본부 역시 시대적 흐름에 공감해 인권을 깊이 있게 교육하고,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

정 팀장에 따르면 본부의 초안은 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진 인권센터 내부에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인권센터는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아우르는 공동팀으로 인권센터장을 포함해 3~4명의 인권전문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는 상담을 비롯한 교육·연구 등 실무를 담당한다.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은 총 9명으로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한다.

인권센터 내부에 인권위원회를 별도로 둔 것에 대해 정 팀장은 "실무와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구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인권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며 "제도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구될 때에는 인권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센터의 핵심은 교육·연구"라며 "인권위원회를 통해 어떠한 부서나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징계 권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는 있다"며 직접적인 징계 권한은 없음을 강조했다.

연세대는 지난 2017년에 윤리위원회 산하에 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연세대 인권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정 팀장은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 인력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 없었다"며 "차질 행정력의 낭비처럼 보일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공동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있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한 캠퍼스에 상주해있는 직원은 없겠지만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현 노조위원장장은 "인권센터 초안의 세부적인 내용에선 이견이 존재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조속한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노조위원장장은 오는 8월 말까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준비가 짧은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조직의 구성이나 인력에 대해 완벽히 준비돼있지 않은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한 조직을 만들 수는 없다"며 "신속한 출범이 중요한 것"이라 전했다.

# 조인원 총장 "회의체 성격, 정비 하겠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지난 달 24일 있었던 2차 합동교무위원회에서는 교무위원 소통체계 개선과 우수교원영입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처장회의, 학장회의 등 회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학과 교수들과 처장이 만나는 자리가 없다는 지적과 회의자료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회

의체의 성격을 정비해야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논의 결과 발표가 아닌 토론 위주 형식으로 전환하고 회의 결과를 전체 구성원과 소통,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우수교원영입을 위해 단과대에서 S&R 위원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신입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우수석학을 영입하기 위해 ES/IS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신입교수의 경우 1년 간 3시수를 감면해 주어

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우수교원 초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직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신입교원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인원 총장은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검토하겠다"며 "회의체의 유연화, 회의체마다 성격이 달라야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8 KHU '웃는 사자'를 찾습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원)생을 찾습니다.

도전 정신을 갖고 관심 분야에 탁월한 성취를 일구고 본교의 위상을 높인 학생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에 감동과 주공감을 형성한 학생 후마니타스칼리지 시인교과를 통해 사회 문제를 발견, 적극적 노력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낸 학생 상상인간의 정신으로 인물을 구조하거나 재능을 돕는 등 공적 성취를 한 학생 봉사 활동을 통한 탁월한 성과로 인류 평화와 나눔을 실천, 지구 공동체의 건설에 이바지 한 학생

공모 부문: 학술연구/사회공헌/문화예술/체육

2018 '경희 웃는 사자' 공모 접수 기간: 2018년 6월 6일(수)까지

평가 대상: 경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접수 서류: 추천서 및 포트폴리오

이메일 접수: pr@khu.ac.kr

사상 전달: 6월

공모 부문의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문의: 1. 대학총장실(2층) 02-961-0234-4 2. 경희대 학생지원센터

## 경희의 UCC(쿠씨씨) 'KHUCC'를 공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희'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만든 '영상'을 기다립니다.

- 학생들이 표현하는 경희의 자랑거리 (정책, 제도, 성과, 문화, 비전, 공간 등 경희의 자랑거리를 UCC로 구성)
- 세계화와 경희
- 문화전환기 대학의 역할

2018 KHUCC(쿠씨씨) 공모 접수 기간: 2018년 6월 6일(수)까지

참가 방법: 이메일 접수(khuucc@khu.ac.kr)

경희대 UCC 공모 대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시상: 1등 1명(100만 원), 2등 2명(50만 원), 3등 3명(30만 원)

문의: 1. 대학총장실(2층) 02-961-0234-4 2. 경희대 학생지원센터

## 5월 넷째 주 (05.21~05.25)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미래인재센터와 함께하세요.'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리쿠르팅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청년취업이카데미 마케터리서치 양성과정성명회	5.24(목) 16:30~17:3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고학년(3~4학년) 진로 멘토링	~ 5.24(목) 18:00	재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생: job@khu.ac.kr	홈페이지 참조 (사전접수)
청년취업이카데미 파이낸셜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 신청	~ 5.25(금)	job@khu.ac.kr 접수	홈페이지 참조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사전 신청(행사 당일까지 가능),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 완료

\* 신청 후 '합격여부' 발표는 하지 않으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함.

\* 협조진 발급은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 기타사항은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교내공지) 및 페이스북, 학교커뮤니티, 단과대학 홈페이지 참조.

2. 취업상담 맞춤형 컨설팅 (11)

◆ 대상: 부교원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실시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일시	담당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월요일-금요일	문상기 이연의 박민경	청운관 1층 상담실 오비스홀 355호	종합정보시스템
토요일-일요일	홍상기 오신중	청운관(1층) 6번 상담실 오비스홀 356호	'수업/상적/상담, 신청'

◆ 상담 신청서 의무: 취업준비도 검사(미래인재센터(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후 각 회(총 2회) 필수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취소 불가(상담 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지참(필수)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서울캠퍼스 미래인재센터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1. 신청대상: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2. 1차 학생 신청기간: 2018.05.17(목) 09:00 ~ 06.15(금) 18:00

※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할 것 (단, 재학생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제출시 재신청가능)

3. 서류제출 및 기구원 동의: 2018.05.17(목) 09:00 ~ 06.15(금) 18:00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5. 제도 개선 사항: 2018-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서 단계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 선택시: 기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 와 동일함 소득구간 확정
-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시: 기존 소득구간 신청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신청

6.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 1699-2000

※ 제도 개선 사항 및 기타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바람

---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1차 학생신청 안내

1. 장학명: 국가 교육근로장학

2. 장학목적: 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나. 직업체질 기(회)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공

3. 주요내용: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가. 교내근로: 시간당 8,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9,500원

나. 근로시간: 1월 8시간, 1주 20시간(학기중), 학기 450시간 내외 진행

4. 신청기간: 2018.05.17(목) 09:00 ~ 06.15(금) 18:00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1699-2000)에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 학생신청 매뉴얼 참조

6. 안내사항: 가. 2018-2학기 1차 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근로유형(학교 내 교내근로, 지역사회교육근로, 현장교육근로 중 교육활동지원분야) 참여 가능하다. 2018-2학기 1차 신청기간 동안 2018-1학기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현장교육근로유형 중 교육활동유형 분야 신청은 불가능하며, 동 신청기간 종료 후 재개다. 2018-2학기 1차 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통계장학 집중교육근로 참여 불가

7.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1699-2000)

한국장학재단

#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근절돼야

전문가 칼럼

정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기기의 발전은 우리에게 극도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누구든지 손쉽게 동영상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영상기기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몰래카메라의 범람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및 그 탈의실, 공중목욕탕, 각종 화장실 등지에서 주로 행해진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만일 누군가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을 한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 초상권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하면, 촬영수단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므로 스마트폰은 물론 초소형카메라나 일반카메라도 당사자의 허락이 없는 몰래카메라의 수단이 되기에 충분하다. 촬영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므로 오로지 신체만이 해당된다. 아울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야 하므로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몰래카메라 촬영은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범법 행위이다.

(사진=셔터스톡)

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를 이처럼 강력히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몰래카메라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며, 피해자에게는 크나큰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4항은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반해서도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카메라촬영행위는 표현행위의 일종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찍거나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백히 피해자의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야기하므로 헌법상 명백한 기본권 침해행위인 것이다.

몰래카메라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남성의 범죄이고 여성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통상은 여성의 신체를 남성이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여성에 의한 남성의 신체 촬영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이므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촬영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은 분명하므로 인권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이런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피해자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가해자인 남자는 이를 통해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주어가 생략된 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규정할 뿐이다.

최근의 판례를 보면, 어떤 남성이 어두운 저녁에 어떤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다 여성을 신체로 촬영한 행위가 기소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1심은 몰래카메라 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2심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법원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왜일까? 대법원의 판결은 '일반인'의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가해자가 만족하면 될 일이지 왜 '일반인'의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결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범률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규정이 불분명하다면 해석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옳다. 만일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반드시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몰래카메라 촬영되는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립되지 않지만 입수한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통시키면 그 유통죄가 성립하며, 나아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유통시킨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범죄행위로서 금지되어 있지만 범죄행위가 줄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법제도만으로 범죄행위를 통제할 수는 없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원인은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므로 이들의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만이 가장 강력한 해결방안이 아닐까 싶다.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보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인터넷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참여마당

지한빈  
(경영학 2014)



## 젊음의 대학에게 직관의 교육을 바란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버닝>을 두고 이를 제작한 이창동 감독은 이런 말을 했다.

"젊음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분노에 싸여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다."

영화는 길을 찾으려 할수록 길을 잃는 젊음과 그 씩씩 없는 달리기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직관이다. 재밌게도 <버닝> 극중 인물이 읽는 책으로 등장하는 알베르 카뮈의 <젊은 시절의 글>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젊은 작가 카뮈는 '베르그송주의'에 담긴 '직관'이 합리주의의 한계를 타파하고 우리를 이끌 세기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젊음은 실체와 근원을 알 수 없는 분노, 무기력함을 안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러닝머신 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달리고 있다. 불평등의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이창동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서레마엘과 파주 사이에 살고 있는" 젊음이다. 이러한 상황 하나의 인간으로 살기란 어쩌면 젊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 살기를 이룰 수 없다. 그 이외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우리학교의 교양교육은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합리주의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교과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과학적 탐구의 방법 위에 정교하게 쌓아올린 방대한 텍스트와 자료들은 학생을 가르치기 좋다. 그러나 젊음이를 '느끼게' 하기엔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경희대학교는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학이다. 일찍이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문화세계의 창조'를 내건 대학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우리학교 교양체육의 현실을 보라. 체육은 체육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만 배워야 할 것이 아니다. 체육대학이 있는 국제캠퍼스에는 체육시설이 집중된 반면, 서울캠퍼스엔 골대 두 개 놓인 실외농구장과 테니스장 하나, 오래된 실내농구장과 헬스장이 전부다. 그 흔한 육상트랙 하나 없다. 해외 명문 대학들은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충실히 마련함으로써 자율적인 체육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체육을 통해 느끼고 성장한다. 직관의 교육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학생사회가 소통과 노력을 통해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젊음에게 예술이 필요하다. 자코메티의 조각,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김수영의 시 같은 예술을 이성으로 이해하겠는가. 카뮈가 <젊은 시절의 글>에서 한 또 다른 말처럼, "진정한 예술은 이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직접, 함께 느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한 작품을 보고, 듣고, 느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향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향 단원이 강의실에서 공연을 하고, 학생들이 가까이서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이미 있다. 또한 '서양미술사' 과목처럼 예술의 맥락과 배경을 소개하며 작품을 느끼게 하는 좋은 교수와 수업이 있다. 전공교육이 아니라 교양교육이다. 그러나 수많은 학생이 수강신청에 몰리는데 비해 해당 강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학생들이 예술을 원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경희대학교는 응대해야 한다.

### 오윤자의 마음코칭 - ⑥

## 벤치에 앉아 스트레스 통역으로 내 마음도 리셋



오윤자  
(생활과학대학 학장)

"스트레스로 미칠 것 같아요. 거의 4년 내내 아르바이트에 집안일이 겹쳐서 학교를 다니는 건지 뭔지..... 밤낮이 맨날 바뀌다보니 수면도 부족하고 우울하고 배탈도 이어져요. 기말이 가까워 오니 과제도 장난이 아니네요. 갑자기 욱하고 치밀어 올라서 팀플 동료와 심하게 다투거나 집에서 동생에게 모진 욱하고, 후회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요즘 캠퍼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학생은 표정이 없고 더욱이 웃는 모습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혼자 있는 학생은 땅이나 먼 하늘만 응시하며 담배를 피거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두어 명 있으면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고, 서너 명이 상 모여야 그런 대로 단순한 웃음을 들을 수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웃는 걸 잊었거나 헛웃음으로 달래고만 있는 건 아닌지, 다가가서 묻고 싶고 웃게도 해주고 싶다.

스트레스는 어떤 요구에 대한 보편적인 신체반응이자, 삶의 전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 외부 자극이나 정보가 처리 능력을 넘어설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 가치도 가지고 있어서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강력한 추동(drive)이 되기도 한다.

### 스트레스, 걱정 수준이면 긍정적인 효과 있어

다알(Dahl)은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반응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너무 적으면 무리하고 동기유발이 안되어 건강하지 못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불편함을 느껴 역시 건강하지 못하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편안함을 느끼고,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는 활발한 원동력이 된다. 즉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자 홀름스와 라에(Holmes & Rahe)의 스트레스 지수 연구를 살펴보면 데이트 횟수의 증감이 20점, 기말시험은 20점, 몇 교과목의 실제

는 25점, 결혼은 50점, 대학 입학과 졸업이 63점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스트레스의 최고치인 100점은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의 사망을 겪을 때라고 한다.

### 삶에 영향 주는 요소 맞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

확실한 건 스트레스는 삶의 한 요소로서 신체적 불편이나 심리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대처방식, 보호요인 등으로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라도 그 영향을 경감 또는 중재할 수 있다.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대학생은 주로 학업, 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 관계, 경제적 문제, 가족 관계, 사회진출 등이 스트레스원(stressor)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완벽주의, 회피, 불안, 분노 등 감정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복장이 터지고 미치고 우울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자. 시간이나 환경 등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됐으니 또 밤새 몸을 혹사해서 강의 듣고 팀플하고 술 먹자'를 반복하며 '눈앞의 뭐든 어떻게든 해내리라'는 수퍼맨·수퍼우먼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구에서 선발투수가 처음부터 강속구를 뿌리며 9회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힘들고 일은 풀리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

###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면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워져

자신의 형편을 정확히 가능하고 해야 할 일의 목록에 따라 계획표를 작성해보자. 산적인 일을 파악하기 쉽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획과 실행여부를 비교하며 현실적인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심

각한 피로감, 번-아웃 증후군, 불면증, 우울증, 주의력·집중력 저하 등 심리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효과적이다.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축적된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모를 줄이고, 도움이 될 만한 개인적·사회적 지지 자원을 얻고, 자신의 요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응해 나가면 부정적 심리 영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단계를 따라 개인 능력의 균형을 통합하고 순응적의 체계를 회복, 유지, 향상해내면 비로소 현실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기말로 가는 이맘때 즈음,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학내 곳곳 숲속 벤치에 앉아 로망의 생각하는 사람의 포즈라도 취해보자.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통역해보며 적당한 스트레스를 유지하려 해보자. 자연 속에서 인간이 진화하고 신체기관이 형성되어 왔다는 이영경의 연구를 따르자면, 5월의 초록으로 고갈된 집중력까지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와 차례로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5월 16일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5월 21일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김종민(정의당) 후보와 각각 인터뷰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일정 상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았다. 다음은 각 후보에게 제시한 주요 질문 및 공통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의 정리며, 순서는 기호 순이다. 기자회견 전체 영상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복합적 문제 해결을 통한 세계적 모델 만들 것”

**Q. 서울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A. 하나만 고르기 힘들 정도로 서울시에는 시급한 과제가 많다. 일상의 호흡을 힘들게 만드는 미세먼지, 청년에게 부담을 주는 주거 문제, 저출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앞서서 해결책을 제시해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

여러 거점을 마련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한 해결책이다. 도심·핀테크·애니메이션·관광·마이스터 산업 등을 키워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할 것이다. 청년수당 또한 실험 중이고 더 나아가 ‘청년 비전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으로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17,000쌍에게 주거를 제공할 것이다.

**Q. 6년 동안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박원순의 서울’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는 시점에서 피로감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

A. 현재 70% 선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피로감보다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도 거둬들여 칭찬하기를 ‘서울은 편리하다’고 한다. 앞으로도 더욱 더 편리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을 강조하고 있다.

**Q. 대학생 주거 부담 대책은?**

A. 역세권에 청년 주택을 지어 일부를 공공임대 형식의 싼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30청년 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공 지원주택을 제공해 청년이 불필요하게 외곽지역

**Q. 청년 일자리 대책은?**

A.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종합예술과 같기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는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융성할 때 만들어지기에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개발과 인프라 구축 통해 청년 문제 해결할 것”

**Q. 서울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A. 미세먼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환경관리기사로 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6년 동안 일한 제가 가장 적임자라 생각한다. 서울시 환경 예산을 기존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하고, 그린 빌딩과 빌딩 옥상 녹화사업 및 아파트 공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은이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서울 시내의 자본과 교육기관이 몰려 있어 이점이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 증원보단 창업에 있다고 본다.

을 늘려 가격도 낮춰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

**Q. ‘대중교통 특정 구간 무료 운용’ 공약을 했다. 서울메트로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중인데 이 공약이 적자를 더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A. 혼잡 구간인 4대문 안으로 들어올 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무료 운용은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외의 부분은 세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Q. 대학생 주거 부담 대책은?**

A. 대학교 주변 민간 땅에 인센티브를 주고 큰 규모의 기숙사를 짓는 방안이 있다. 단순히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고 절반은 공공 용도로, 절반은 상업 용도로 사용하면 경제적 효과와 기숙사 해결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개발을 통해 공급

**Q. 청년 일자리 대책은?**

A. 고학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치가 높아 실업률이 높다. 대학 주변에 지적 인프라를 구축해 젊



## 김종민(정의당) 후보, “청년의 삶, 곧 서울과 한국의 미래”

**Q. 서울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A. 가장 핫한 이슈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환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교통, 교육, 산업 체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과제다. 서울은 국내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만의 정책이 필요하다. 승용차 전면 통제를 실시해 주요 도심에는 버스만 통행하게 할 것이다. 자동차와 미세먼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A. 청년 실업자 27만 명, 관련 공약은 넘쳐나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실업 급여 받는 기간을 늘리거나 20세가 되면 사회 상속세로서 1,000만 원을 주는 방안으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Q. ‘청년사회상속세’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A. 기본소득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면 복지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기본 원리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의 재정적 지원과 복지는 공존할 수 없다. 상속세의 취지가 ‘소득의 재분배’인 만큼 상속세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22조 원을 날린 4대강과 같은 국가 규모 사업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가용할 수 있는 3조 원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Q. 대학생 주거 부담 대책은?**

A. 대책은 학내 기숙사 증축이다. 쫓벌혁명 이후 불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기에 대학가 근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Q. 청년 일자리 대책은?**



SAMSUNG

컬러 속에 숨은 미세한 차이, 마침내 QLED로 살아나다

100% TV

삼성 QLED

| 컬러볼륨 100% |

그 어떤 TV로도 볼 수 없었던 컬러 속의 미세한 차이 - QLED TV의 100% 컬러볼륨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장면 속에 존재하는 컬러의 모든 디테일을 경험하는 순간, 영상의 감동은 100%가 될 것입니다

\* 100% 컬러볼륨 구현 인증 획득 (DQ-P2 기준) 독일 VDE 컬러볼륨 테스트 인증 기준 2017년 12월

###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8.05.14(월)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간: 2018.05.28(월) 17:00 까지 확정기간: 2018.06.01(금)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8.06.14(목) 10:30 - 06.15(금)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배강공고	2018.06.20(수) 12:00 (1차) 2018.06.21(목) 09:00 (2차)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8.06.18(월) - 06.20(수)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신청기간 (배강과목 수강생)	2018.06.21(목) 09:00 - 17:00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2차 배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8.06.22(금) - 2018.07.13(금)	
성적입력일	2018.07.13(금) - 07.16(월)	
성적발령일	2018.07.13(금) - 07.16(월)	
성적정정일	2018.07.17(화) - 07.18(수) 15:00까지	

**2.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 3학점	온라인 강좌	온라인 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2교시	13:00-15:45	
		2교시	13:00-15:45				

**3. 수강신청**

가. 수강가능 학점: 최대 6학점

1) 타대학 계절학기 학점교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6학점 제한범위에 포함됨

2) 국제교류처, 취업진로지원처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우수, 어학우수, 현장실용등은 어학점의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 본인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4. 수강등록**

가. 등록금액: 1학점당 89,000원

나.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1) 일액사상: 학년 2018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확인사항: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생선민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 신청과목의 배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니 등록기간내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5. 등록 후 수강 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8.06.21(목) 17:00	전액 환불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8.06.22(금) - 06.28(목) 17:00	수강료의 2/3 환불
수업개시일 1/3 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8.06.29(금) - 07.03(화) 17:00	수강료 1/2 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수강 취소 불가함)	

**수강 취소 방법**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불)

※ 배강과목 수강자 포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세부자유과목) 20명 이상

나. 전공강좌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

라. E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학기 재수강신청 불가함(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신청 가능)

바. 배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사. 계절학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자.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차.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2) 졸업유예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불허함

**7. 문의처**

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정문동 2층

나.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31)201-340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